생활체육의 대명사 '서울시민리그', 참가자 7만명 돌파

집 근처서 누구나 참여… 건강한 삶, 건강한 서울 구축

3개 종목서 출발 작년 7개 확장
올해 14억 예산투입, 리그개최
토너먼트로 최종 우승팀 선정

서울시가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해온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여 인원이 사업 시행 5년 만에 7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생활체육 모델인 서울시민리그의 2015~2019년 참가 인원은 7만3952명에 달한다. 작년에는 1192팀에 소속된 1만5141명의 시민이 경기를 뛰었다.

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S-리그를 운영해왔다. 서울시민리그는 기존에 생활체육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나 친구끼리 팀을 만들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시민 올림픽이다. 집 근처 체육시설에서 경기가 진행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민리그 운영 모습. /서울시

S-리그 실적 자료를 보면 도입 첫해인 2015년에는 1만463명(747팀)이 경기를 뛰었다. 참여인원은 2016년 1만5250명(1067팀), 2017년 1만7366명(1178팀), 2018년 1만5732명(1250팀), 2019년 1만5141명(1192팀)으로 시행 2년차부터 1만5000명선을 유지해오고 있다.

S-리그는 2015년 축구, 농구, 탁구 3개 종목에서 출발해 지난해에는 축구, 풋살, 농구, 탁구, 족구, 배구, 야구 등 경기종목을 7개로 늘렸다.

시는 올해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축구, 야구, 농구, 탁구, 족구, 배구, 풋살, 복싱 총 8개 종목에서 1만6000여명이 참여하는 '2020 서울시민리그'를 개최한다. 전년도 시범종목이었던 검도, 복싱, 컬링, 테니스, 파크골프 가운데 복싱이 올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2020 서울시민리그는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시는 올해 진행되는 S-리그에는 1685팀, 1만6339명의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민 누구나 팀을 꾸려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는 주말이나 주중, 주·야간에 공공·민간·학교 체육시설 등에서 열린다. 출전을 원하는 팀은 S-리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팀당 2만~11만원이다.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시는 대회 운영 장애요소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시는 후보선수를 늘려 전력을 보강한다. 경기 참가 인원이 부족해 몰수 경기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몰수 경기는 선수 불참, 규칙 위반 등의 이유로 시합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과실이 없는 팀에 승리가 선언되는 경기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3423경기 중 497경기(14%)에서 몰수 경기가 발생했다.

아울러 시는 ID카드 시스템을 구축해 선수 검인체계를 강화한다. 지난해 부정선수 신고 건수는 총 8건이었다.

S-리그 권역별 예·본선은 조별 풀리그 방식으로 3~10월에 치러진다. 권역리그 입상 팀은 7~11월 토너먼트 경기로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결선 대회는 상암월드컵경기장, 잠실실내체육관, 고척돔구장 등 프로 선수들이 뛰는 대형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1위에는 100만원, 2위에는 70만원, 3위에는 5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메달을 수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중 운영되는 S-리그에 참여하기 위해 시민들이 경기장에 나와 운동을 하는 등 건강행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최근 10년간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걸린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행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고혈압 진단자 비율은 2008년 17.4%에서 2018년 18.9%로 1.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당뇨병 진단자 비율은 6.5%에서 7.1%로 0.6%포인트 올랐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민의 70%, 사회불평등 "심각"

가장 큰 원인 부동산 등 자산형성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불평등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등 자산형성을 꼽았다.

서울시는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21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임의 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8%는 우리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매우 심각 26.5%, 심각 42.3%)고 답했다.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분야로는 부동산 등 자산형성이 41.1%로 1위였다. 정치 및 사회참여(24.1%), 취업·승진 등 일자리(20.8%) 분야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 등 자산형성 불평등의 심각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연령대는 30대(51.7%)였다. 50대(32.5%)와 60세 이상(39%)은 정치 및 사회참여의 불평등을, 20대(28.3%)는 취업·승진 등 일자리 불평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78.6%가,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은 시민의 83.8%가 심각하다고 여겼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등 물가상승 대비 임금 인상률 저조(30.8%)를, 자산불평등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실패'(33.9%)를 1순위로 꼽았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양재에 AI 산업 육성 '앵커시설' 건립

지하1~지상7층, 연면적 1만220㎡
스타트업 육성·교육·협업 활성화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양재 R&D 혁신지구에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앵커시설을 짓는다고 27일 밝혔다.

AI 산업 육성 앵커시설은 현재 택시 미터기 검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대지면적 5098.7㎡)에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1만220㎡ 규모로 건립된다.

앵커시설에서는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기업 육성·교육, 양재 일대 AI 연구소·기업과 협업 등이 이뤄진다. 관련 스타트업과 연구자 약 410명이 입주할 수 있다.

'AI산업 육성 앵커시설' 당선작 조감도. /서울시

시는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해 '메가플로어'(에스티피엠제이 건축사사무소)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은 '시너지를 생성하는 공유 오피스'라는 콘셉트로 다양한 유형의 공유 연구 공간을 제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1, 2층에는 AI 관련 기업과 연구소를 위한 개방형 라운지와 메이커 스페이스, 쇼룸, 카페 등을 배치했다. 입주 연구자들이 근무하는 3~7층은 회의실, 협업 공간, 휴게공간, 오픈 키친 등으로 꾸몄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 공사를 시작해 2022년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하는 공간과 자유롭게 소통·협업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배치하는 계획을 시도했다"며 "미래 연구개발(R&D) 센터의 새로운 공간 유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깊은 맛 내는 전통 장, 직접 만들어보세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서 무료 강좌

서울시는 내달 10~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통 장 담그기 무료 강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월 4일 오전 10시부터 참가자 300명(1회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희망자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10일에는 서울에서 3대째 장 담그기 내림솜씨를 지닌 조숙자 강사가, 11일에는 발효음식과 약선음식의 전문가인 고은정 강사가 장 담그기와 장 가르기, 장독대 관리법 등에 대해 강연한다.

2월 12일에는 4대째 서울 고추장 내림솜씨를 지닌 김복인 강사가 띄운 보리고추장 담그기, 찹쌀고추장 담그기, 고추장 관리법 등을 알려준다.

전통 장 담그기 무료 강좌 모습. /서울시

조상태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예로부터 깊은 맛을 내는 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정월에 장을 담그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전해진다"며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전통 장을 담그는 요리교실을 무료로 개설하니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현덕지구 조기 활성화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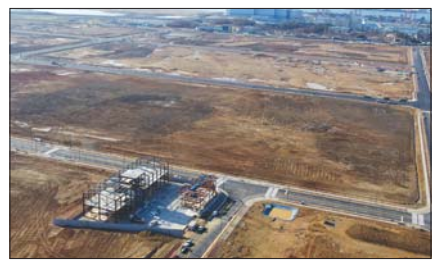
올해 토지보상 행정절차 추진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목표를 4차 산업의 혁신산업 거점 조성에 중점을 두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분양 및 현덕지구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 포승(BIX)지구 분양 및 현덕지구 조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평택 포승(BIX)지구는 분양 활성화를 위해 4차 산업 및 친환경미래자동차 산업 유치 강화를 위한 입주업종을 추가하고, 국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분양방식을 공모방식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키로 했다.

부품·소재·장비 해외 기술기업 유치 및 친환경 미래자동차 육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외 기업협회와 파트너십 협약을 추진, 투자유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

현덕지구에 대해서는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례를 도입, 올해 안에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토지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체육사' 발간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체육의 역사를 집대성한 서울역사총서 제11권 '서울체육사'를 펴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역사편찬원은 그동안 서울역사총서 시리즈로 행정·건축·교통·상공업·인구·재정·항일독립운동·공연예술·재해·복지 등의 주제를 정리해 발간했다. 이번에는 시리즈의 제11권인 '서울체육사'를 공개했다.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은 한국체육의 주요 무대였으며 한국을 스포츠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따라서 서울체육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은 한국체육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서울체육사는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 열람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